

농촌지역 여성단체의 사회복지관련 활동이 사회적 자본형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he Social Welfare Activity of Women's Groups in Rural Areas on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임종임, 이신숙

순천대학교 사회문화예술대학원 사회복지학

Jong-lm Lim(rji0724@hanmail.net), Shin-Sook Lee(lsi@sunchon.ac.kr)

요약

본 연구는 농촌지역 여성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활동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농촌지역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전남지역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 2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 여성단체의 사회복지 관련활동 정도는 평균 3.36점이었고 사회적 자본형성의 정도는 3.47점으로 이들 점수 모두 중앙치인 3점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나타내 사회복지 관련 활동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 정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조사대상자인 여성단체 자원봉사자의 사회복지 관련 활동의 정도는 계층인식, 연령, 사회복지 활동횟수, 사회복지 활동기간에 따라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형성의 정도는 계층인식, 교육수준, 연령, 사회복지 활동횟수, 사회복지 활동기간, 사회복지 활동분야에 따라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셋째, 농촌지역 여성단체의 사회복지 관련활동과 사회적 자본형성 간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 자본형성에 대한 여성단체 자원봉사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사회복지 관련 활동의 영향력은 복지에 대한 관심, 계층인식, 복지에 대한 태도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들 변인이 갖는 설명력은 46%로 매우 높았다.

■ 중심어 : | 농촌지역 여성단체 | 사회복지 관련활동 | 사회적 자본형성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the social welfare activity of women's organization in rural area would affect the establishment of social capital. The subjects in study were 250 volunteer workers who belonged to a woman's organization in Gurye-gun, Jeollanam-do. The statist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by SPSS Windows 18.0 Program.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as the result of assessing the extent of social welfare activity by women's organization in rural area and of the establishment of social capital, the social welfare activity and the establishment of social capital produced average values of 3.36(.86) and 3.47(.55) respectively. The average value of the social capital establishment was higher than the median value of 3.00. Second, social welfare activity of women's organization in rural area were significant with respect to perception of social class, age, activity frequency, activity period. And social capital were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perception of social class, education, age, activity frequency, activity period, activity field. Third, there is a very strong correlation between the social welfare activity of women's organization in rural area and the establishment of social capital. Fourth, the influence of the research subject's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 the establishment of social capital was 31%, and by the addition of variable factors on social welfare activity the influence on the establishment of social capital increased up to 46%, ascertaining that a 15% increase of the influence on the establishment of social capital was brought up by social welfare activity.

■ keyword : | Women's Organization in Rural Area | Social Welfare Activity | Social Capital |

1. 서론

우리나라 농촌지역은 1960년대 이래로 산업화·도시화가 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통계청[1]에 따르면 급격한 이농현상으로 농가 인구는 14세 이하 인구비중이 2005년 9.8%에서 2010년 7.9%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은 2005년 29.1%, 2009년 34.2%, 2010년 35.3%로 증가하여 이는 농촌이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고령인구 중에는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여성화 문제를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여러가지 특성으로 농촌지역은 노동능력 저하의 문제를 안고 있고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저소득층이 많은 열악한 생활환경을 지니고 있는 반면 복지제도의 혜택은 상당히 미약하다.

한편 농촌사회의 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농촌여성의 역할이 가정적 역할과 농업생산자의 보조적 역할로 한정되었던 것이 이제는 농업노동에서의 역할증대와 더불어 농촌여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즉, 가정 내에서의 지위의 향상과 마을개발 사업에서의 참여를 통해 농촌여성들의 사회활동 영역이 과거보다 훨씬 증대되어 가고 있으며 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동적·협동적 지역사회 조직활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지역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농촌여성들의 움직임은 이들의 위상정립뿐 아니라 지역사회복지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2].

이와 같은 농촌여성의 활동은 농촌 여성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으나 현재 많은 농촌 여성단체들의 활동이 기존의 중앙단체의 획일적인 사업에서 지역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고유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양상으로 진화되고 있다.

실제로 농촌 여성단체 활동은 농촌여성의 위상정립은 물론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의 그간의 노력에 대한 가치절하와 여성단체의 주민복지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여성단체의 인적자원을 사회복지 자원으로 체계화 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였다[3]. 더욱이 농촌에서의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분위기는 여성단체의 복지활동과 참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농촌지역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단체는 여성, 가정, 사회관련 복지와 관계를 맺고 있어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고[4] 특히 우리사회가 처한 복지상황을 고려해 볼 때 민간조직으로 복지자원을 확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중요하다. 특히 조직체 회원의 사회복지관련 활동은 참여자 자신에게 만족감과 성취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적으로도 공익을 창출하며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등 그 성과가 크다.

그러므로 문화적 혜택, 교육, 의료서비스 등 복지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여성단체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의 사회복지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은 사회복지실천의 저변확대를 위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사회적 자본형성이 공동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유리함에 따라 농촌지역에 기반을 둔 여성단체의 활동은 사회적 자본형성을 도모하는 구체적 대안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또한 지역사회 불우이웃 돕기나 이재민 돕기 등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어 농촌지역 여성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활동은 지역사회 발전을 낳는 사회적 자본형성의 생산 수단으로서 기대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사회에서의 자발적이며 조직적인 여성단체의 사회복지 활동이 사회적 자본형성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농촌지역 여성단체의 사회복지관련 활동과 사회적 자본형성의 정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활동과 사회적 자본형성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3. 조사대상자의 사회복지관련 활동과 사회적 자본형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사회적 자본형성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사회복지관련 활동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농촌지역 여성단체의 개요

농촌지역 여성단체는 1957년 농촌생활개선사업을 시작하면서 생활개선의 효과적인 지도를 위해 조직·육성한 “생활개선구락부”가 그 효시이다. 이는 농촌부녀자들의 자발적인 학습단체로서 1958년에 처음으로 80여개의 “생활개선구락부”를 조직하여 의·식·주·보건육아·부업 등의 과제를 이수하도록 지도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1967년에 보건사회부가 여성의 능력개발과 생활개선 및 사회참여를 위하여 도시와 농촌을 망라한 부녀조직인 ‘부녀교실’을 조직하고 1968년에는 대한가족계획협회에 의해 전국 군 지역 법정 리·동의 98.7%에 해당하는 16,652개 리·동에 ‘가족계획 어머니회’의 조직을 완료하여 가족계획 및 여성보건사업 실천보급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71년에는 농업협동조합이 농촌지역 부녀자들의 생활개선과 농업운동 참여를 목적으로 ‘부녀회’를 조직 운영하였다[2].

이렇듯 각 여성단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다가 1977년 국무총리훈령 제141호 ‘부녀지도 협의회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부녀교실, 가족계획 어머니회, 생활개선구락부, 부녀회 등이 ‘새마을 부녀회’로 명칭을 바꾸어 통·폐합하여 운영하게 되면서 각 여성단체는 새마을 부녀회 내의 저축부, 생활 개선부, 가족 계획부, 교양 활동부, 소득개발부로 나누어 활동하였다.

1990년 접어들면서 새마을부녀회로 통합된 농촌여성단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하는 농촌사회의 욕구충족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농촌관련 기관들은 기관의 목적에 부응하는 새로운 농촌여성조직의 육성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농협에서는 1993년에 농가주부모임을 결성하고 농촌진흥청에서는 1994년에 사단법인 생활개선회를 발족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변천과정에서 농촌 여성단체의 역할도 변화되어 왔다. 농촌조직을 유형화하는 것은 학자별 기준에 따라서 다르나 자생력의 여부에 따라서 자생 집단과 비자생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생 집단은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한 결사체로서 주민의 자발적 필요나 의도에서 생겨난 집단이다. 비자생 집단은 농촌의 마을이나 행정단위 지역을 전부 포괄하거나 일부 지역을 조직화한 집단으로 대체로 자생 집단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며 외부기관이나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여성단체의 경우 비자생 집단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단체에 대한 정의는 농촌여성단체는 물론 일반 여성단체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여성이 참여하여 조직한 구성체는 조직활동의 종류나 이념에 관계없이 여성단체로 분류·정의해 왔으나 1980년대 이후 여성 중심적 의식이 증대되고 여성 운동적 시각이 확대됨에 따라 여성단체에 대한 개념과 정의도 변화되고 있다[5].

조직 활동기	통합기	분화 활동기
(58) 생활개선구락부 (농촌진흥청)	(77) 새마을부녀회 -저축부 -생활개선부 -가족계획부 -교양활동부	(94) 사단법인 생활개선회 (농촌진흥청)
(67) 부녀교실 (보건사회부)		새마을부녀회 (보건복지부 →여성부·02)
(68) 가족계획어머니회 (대한가족계획협회)		
(71) 새마을부녀회 (농협)		(93) 농가주부모임 (농협)

그림 1. 농촌지역 여성단체의 성립과 변천

이금옥[6]은 농촌여성들은 단체조직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숨은 능력을 개발하며 공동 활동을 같이 함으로써 협동심을 함양하고 나아가 이웃 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렇듯 농촌여성의 조직은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최근 들어 농촌주민들은 삶의 기회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농촌 지역사회의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면 단위 주민간의 협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통해서 볼 때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조직 활동은 상호 의존적 관계를 유지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 단위 주민 간 협력은 농촌 여성의 하부조직 간의 연계활동 및 협동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다.

2. 농촌지역 여성단체의 사회복지관련 활동

여성의 복지활동은 여성 자신을 사회적 존재로서 지각하게 하며 지역사회 주민복지를 위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인 삶의 주체적 활동을 강화시켜 준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의 설립 배경이나 이념이 설립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목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단체들이 여성의 지위향상과 계몽활동을 위하여 여성에 대한 재교육이나 권익증진 및 여가선용에 초점을 두었으나 점차 사회가 변화하면서 단체의 성격에 따른 전문성을 활용한 복지활동이 전개되었다[7].

현재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단체들의 사회복지관련 활동을 살펴보면 여성지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자원봉사조직 운영 및 봉사활동, 사회복지관 및 복지시설 운영, 지역사회 및 불우이웃에 대한 봉사사업, 각종 상담사업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소년·소녀 가장, 노인, 장애인, 빈곤가정 등에 대한 각종 상담, 일상생활 의욕 고취 등과 같은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 의식주 관리 및 음식물 제공과 같은 가사지원 서비스, 약물복용 안내, 건강 검진 등의 건강유지 서비스, 말벗·전화 걸기 등의 정서적 욕구 충족 서비스, 직업·부업 기능 및 취업과 관련된 정보제공 등의 소득지원 서비스, 양육 서비스 등을 전개하고 있다.

1970~1980년대 농촌부녀 조직의 주요 사업을 보면 가족계획어머니회의 '봉사활동'을 제외하고는 부녀교실, 생활개선구락부, 새마을부녀회 모두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찾아볼 수 없다. 주요사업을 보면 부녀교실은 새 생활 운동, 소비생활의 합리화, 소득증대사업, 가정의례준칙 생활화 등이고 가족계획 어머니회는 가족계획사업, 공동기금조성, 환경미화 및 지역개발사업 등이었으며 생활개선구락부는 의식주 생활개선, 곡식 소비절약, 기금조성, 건전가정육성이었고 새마을부녀회는 저축사업, 가정의례 간소화, 소득증대사업, 소비절약, 부녀교실 운영 등에 국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새마을부녀회의 역할과제 중 하나가 봉사활동으로 재해 지역 봉사, 소년소

녀 가장 돕기, 무의탁 노인 돕기, 김장 담가주기, 청소년 선도, 부녀봉사활동 등을 행하고 있다[8].

김정옥 등[9]은 새마을부녀회의 사회복지관련 활동으로 청소년, 노인, 실직가정, 사회복지시설지원, 지역사회 복지활동, 위기지원 등이 있다. 소년소녀가장과 실직 가정에는 쌀과 김장 지원을, 독거노인 재가복지사업으로는 집안청소, 빨래, 김장, 도배 등의 가사지원서비스와 정서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다. 지역사회복지 관련 활동은 '부녀새마을자원봉사대'를 운영하여 실직,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농촌 일손 돕기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지원,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는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고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서비스 내용의 중복을 피하며 수혜 받지 못하는 대상을 줄여 사회복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주목할 점으로 보여 진다.

안동시의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에서도 사회복지관련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이들의 사회복지 관련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미용 봉사, 수지침과 같은 노인복지활동, 행사시 무료 차 제공, 농촌 일손 돕기 등의 지역사회 복지활동, 가사지원서비스, 장애인시설(평가의 집)에 대한 이동서비스, 복지기관 및 시설 서비스, 초등학교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 서비스 등의 활동이다[3].

생활개선회에서도 수혜지역 돕기 등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농협에서 육성하는 농가주부모임은 불우이웃, 시설과 자매결연사업을 실시하는 등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관련 활동이 미흡하나마 태동하고 있다[5].

장덕희[3]의 안동지역 새마을부녀회는 '독거노인 돕기(39.7%)'가 가장 활발한 사업이고 다음으로 장애인 돕기(18.5%), 실직자가정 돕기(15.9%), 소년소녀가장 돕기(12.0%), 저소득 가정(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활개선회의 경우 소년소녀 가장 돕기(76.5%)가 가장 활발한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은 활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자.함인희[4]의 연구에서 지역여성단체가 가장 비중 있고 활발하게 하고 있는 활동은 '자원봉사활동

(50.3%)'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육 프로그램', '여성지위향상도모 활동'의 순이어서 사회복지관련 활동의 일환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여 여성단체의 사회복지 관련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함태홍[2]은 전라남도 해제면의 새마을부녀회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새마을 부녀회 사업 활동 중 '이웃 돕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이나 관리자가 원하는 사업도 사회봉사활동을 꼽고 있어 사회복지관련 활동에 관심을 갖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3.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1)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관련 선행연구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대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관계 속에 자리매김(embedded)된 자원으로 정의한다. 즉 사회적 자본은 조직이나 혹은 개인이 보유한 사회적관계의 네트워크로부터 파생된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 가능한 네트워크 내에 자리매김 된 자원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10].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인적자본의 투입에 따른 회수율(rateofreturn)에 의해 각기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행위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자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11]. 첫 번째 직접적인 이익은 정보이고 두 번째 이익은 영향력을 미치는 통제권력이다. 세 번째 이익은 두 명 이상의 개인들 간에 구체적인 거래와는 독립적으로 상호 신뢰와 몰입이 생길 때 존재하는 사회적 결속감(solidarity)이다.

Naphapiet와 Ghoshal[12]은 신뢰가 높은 네트워크는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에 비해 더 민감하고 더 깊이 있는 정보를 교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결속감(solidarity)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국내의 홍영란[13]은 연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시민참여 및 시민의식, 신뢰 및 관용성,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등 세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서 수준을 미시적(개인, 가정, 이웃), 중범위적(학교, 지역사회), 거시적(국가, 국제사회)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였

다. 사회적 자본 중에서도 신뢰감에 초점을 둔 이정인, 유병정[14]은 구성원이 지각하는 조직신뢰는 조직의 장기적인 안정과 구성원 간의 복지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동수[15]도 사회적 자본에서 신뢰가 경제적 성과를 증진시키며 한 국가의 복지와 경쟁력은 지배적 문화특성인 신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양국진[16]은 학교조직의 사회적 자본이 학교 공동체 의식과 학습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것을 밝혔고 가정 내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의 우울 간의 관계를 밝힌 염소림,최유석[17]은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은 낮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우울을 완화시키기 위해 부모-자녀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한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을 실천적으로 현장에 접목한 이현기[18]는 중년층 45-54세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자본이 자원봉사활동에 갖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공식적 상호작용, 비공식적 상호작용, 네트워크 유·무 변수는 자원봉사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사회적 통합은 유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사회적 자본은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상호존중의 힘, 정서적 성취감, 시민사회 공동체의 결속력, 사회 공동의 목표달성을 이룩한다.

4. 사회복지관련 활동과 사회적 자본형성과의 관계

사회복지관련 활동 중 자원봉사와 사회적 자본형성과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어떤 변수가 우선이고 어떤 변수가 최종인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서로 간의 변수가 각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많은데[19-22] 사회적 자본이 자원봉사를 시작하는데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고한다[23-26]. 김태룡, 안희정[23]은 연구에서 특히 자원봉사자의 특성인 이타성과 자아실현에 사회적 자본의 요소인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이 모두 각각의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면서 이와 같은 사회적 자본은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한 자원이라고 하였다.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주민활동을 강조한 소진광[27]은 주민조직을 그들의 공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관계가 설정될 때 사회적 자본은 최대화된다고 강조한다. 평생교육 학자들이 사회적 자본에 관심을 둔 이유는 평생교육이 인적 자본 중심의 인적자원 개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인데 평생교육 참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인 네트워크, 관계, 가치와 규범, 상호신뢰, 삶의 질 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역으로 염정호[28]는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방자치의 정착이 미흡한 원인을 사회적 자본형성의 부족함으로 지적하면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었을 때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연구들[27][29-33]은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는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상호존중의 힘과 정서적인 안정감, 신뢰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구축한다고 한다. 이경아[34]도 실증연구를 통해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수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습동아리 활동에 대한 참여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최장수[35]의 연구에서도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많은 복지프로그램이 시민조직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이렇듯 사회적 자본형성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관련 활동이 사회적 자본 형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농촌지역인 전라남도 구례군에 소재한 여성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 한정하였다. 특정지역의 선정이유는 본 지역이 연구의 목적인

사회적 자본형성이 지역사회의 규모가 작을수록 유리하다는 점에 일치하였고 본 연구자가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여성단체에서 일하고 있어 연구를 수행함에 편리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사는 2013년 6월부터 8월까지 구례군 여성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포하였으나 250부(회수율: 83%)를 회수하여 자료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집단)	빈도(백분율)
연령	20~29 세	3(1.2)
	30~39 세	25(10.0)
	40~49 세	68(27.2)
	50~59 세	95(38.0)
	> 60세	59(23.6)
교육수준	고졸미만	114(45.6)
	고졸	116(46.4)
	전문대/대졸이상	20(8.0)
배우자 유무	무	5(2.0)
	유	240(96.0)
	기타(별거 등)	5(2.0)
주거 형태	자 가	222(88.8)
	임 대	28(11.2)
계층 인식	하위층	16(6.4)
	중하층	58(23.2)
	중층	132(52.8)
	중상층	42(16.8)
	상위층	2(0.8)
월 생활비	≤1,000,000	51(20.4)
	1,010,000~2,000,000	75(30.0)
	2,010,000~3,000,000	68(27.2)
	3,010,000~4,000,000	48(19.2)
	≥4,000,000	8(3.2)
직업 유무	유	118(47.2)
	무	132(52.8)
사회복지 활동분야	아동, 청소년복지	53(21.2)
	노인복지	110(44.0)
	장애인복지	16(6.4)
	여성복지	31(12.4)
	지역개발	24(9.6)
	행정업무 기타	3(1.2) 13(5.2)
사회복지 활동기간	<1 년	22(8.8)
	1~3 년	49(19.6)
	3~5 년	75(30.0)
	5~7 년	37(14.8)
	≥8 년	67(26.8)
사회복지 활동횟수	< 1 주	130(52.0)
	1 주	82(32.8)
	2 주	18(7.2)
	3 주	14(5.6)
	≥ 4 주	6(2.4)
총계		250(100.0)

2. 연구도구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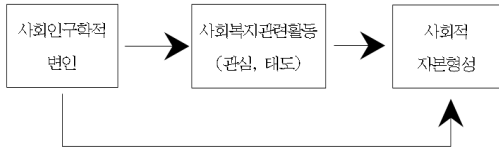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자기보고 (self-reporting) 형식으로 응답자의 사회복지 관련활동, 사회적 자본형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농촌지역 여성단체의 사회복지 관련활동 척도는 류기형 등[26]의 설문문항을 참고로 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흥미와 가치), 사회복지에 대한 태도(발전과 성장의식)를 2개의 하위요인으로 하고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형성 척도는 김상민[36]과 이양수[37]의 설문문항을 참고로 하여 신뢰형성에 관한 질문 10문항, 네트워크 구축을 묻는 10문항, 사회적 규범을 측정할 수 있는 10문항 등 총 30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본 연구자가 재구성 하였다. 각 문항은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복지관련 활동 정도가 높고 사회적 자본 형성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사회복지관련 활동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 이고 사회적 자본형성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6$ 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주거상태, 계층인식, 월평균 가구소득, 직업유무, 사회복지활동분야, 사회복지활동기간, 사회복지활동횟수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구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 구성

설문지 구성 지표			문항수	신뢰도	
사회복지 관련활동	사회복지에 대한관심	흥미와 가치	7	.90	.89
	사회복지에 대한태도	발전과 성장의식	6	.88	
사회적 자본형성	신뢰형성	공공에 대한 신뢰 지역사회에 대한신뢰 사람에 대한 신뢰	10	.89	.91
	네트워크 구축	사회복지활동 관련 네트워크 확장 이웃 및 인간관계 확장 지역활동와 정보의 확장	10	.92	
	사회적규범	일반법규 준수인식 공공의 문제해결에 대한 지식 타인의 사회적규범에 대한 반응 지역 활동 참여인식	10	.92	
사회인구 학적특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주거상태, 계층인식, 월평균 가구소득, 직업유무, 사회복지활동분야, 사회복지활동기간, 사회복지활동횟수		10		
총 문항 수					53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Window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목적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하였으며 여성단체의 사회복지관련 활동과 사회적 자본형성의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해서 크론바하 알파테스트 (Cronbach's alpha test)를 통해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여성단체의 사회복지관련 활동과 사회적 자본형성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는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여성단체의 사회복지관련 활동과 사회적 자본형성을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넷째, 여성단체의 사회복지관련 활동과 사회적 자본형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형성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여성단체의 사회복지관련 활동이 갖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농촌지역 여성단체의 사회복지관련 활동과 사회적 자본형성의 정도

농촌지역 여성단체의 사회복지관련 활동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가 다음 [표 3]에 나타나 있다. 표에서와 같이 농촌지역 여성단체의 사회복지관련 활동의 정도는 평균 3.37점으로 중앙치인 3점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시간활용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어 주변을 배려하고 이웃을 돕는 활동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복지관련 활동의 하위요인인 관심과 태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3.34점이고 태도는 3.39점으로 거의 비슷한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

표 3. 농촌지역 여성단체의 사회복지관련 활동(관심, 태도)의 정도

구 분	N	최소값	최대값	M(SD)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	250	1.00	5.00	3.34(.90)
사회복지에 대한 태도	250	1.60	4.83	3.39(.81)
사회복지관련 활동	250	1.53	4.92	3.37(.86)

다음으로 농촌지역 사회복지관련 활동을 통한 사회적 자본형성의 정도는 어떠한지 살펴 본 결과가 다음 [표 4]에 나타나 있다. 표에서와 같이 사회적 자본은 평균 3.47점으로 중앙치인 3점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사회적 자본형성 역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권영숙[38]의 연구결과가 일치하는데 그 이유는 적극적인 사회복지관련 활동은 개인적 지식, 인식, 흥미, 태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사회적 자본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적 자본형성을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규범형성이 3.63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네트워크 구축이 3.47점, 신뢰형성이 3.3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 사회적 자본형성의 정도

구 분	N	최소값	최대값	M(SD)
신뢰형성	250	1.00	4.40	3.31(.59)
네트워크 구축	250	1.60	4.90	3.47(.64)
사회적 규범형성	249	2.00	5.00	3.63(.59)
사회적 자본형성	250	1.53	4.67	3.47(.55)

2.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활동과 사회적 자본형성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활동과 사회적 자본형성을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난 연령, 교육수준, 계층인식, 사회복지활동분야, 사회복지활동기간, 사회복지활동 횟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5][표 6]과 같다.

1) 연령, 교육수준, 계층인식, 사회복지 활동분야, 활동기간, 활동횟수 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활동의 정도

다음 [표 5][표 6]에서와 같이 농촌지역 여성단체의 사회복지관련 활동의 정도는 계층인식(F=10.18), 연령(F=2.70) 사회복지 활동횟수(F=6.12), 사회복지 활동기간(F=5.55)에 있어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중층 이상의 집단과 중상층 이상인 집단이 중하위층 이하인 집단보다, 20~39세의 집단이 40~49세의 집단보다, 사회복지활동 횟수가 주 1회 이상인 집단이 주 1회 미만인 집단보다, 사회복지 활동기간이 3년 이상인 집단이 3년 미만인 집단보다 사회복지관련 활동의 정도가 많았다.

이와 같이 연령이 낮고 생활수준이 높으며 활동 빈도가 높고 오랜 시간 활동했을 때 사회복지 관련활동의 정도가 많았다는 본 연구결과는 전은정[39], 성진숙[40], 정현수[4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2) 연령, 교육수준, 계층인식, 사회복지 활동분야, 활동기간, 활동횟수에 따른 사회적 자본형성의 정도
다음 [표 5][표 6]에서와 사회적 자본 형성의 정도는 계층인식(F=7.55), 교육수준(F=3.73), 연령(F=2.67), 사

회복지 활동횟수(F=5.21), 사회복지 활동기간(F=4.86), 사회복지활동 분야(F=1.10)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증상층 이상인 집단이 중하층 이하인 집단보다, 고졸 미만인 집단이 고졸 이상인 집단보다, 20~39세인 집단이 40~49세인 집단보다, 사회복지활동 횟수가 주 1회 이상인 집단이 주 1회 미만인 집단보다, 사회복지 활동기간이 3년 이상인 집단이 3년 미만인 집단보다, 노인복지에 종사했던 집단이 그이외의 복지분야(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행정업무 등)에 종사했던 집단보다 사회적 자본형성의 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형성에 관한 변인을 연구했던 김미혜[31]의 연구와 일치하는데 연구에서 저자는 참여수준이 적극적이고 참여여건이 좋을수록 사회적 자본형성이 긍정적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송인영과 김영해[42]도 다문화가족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관련 활동 참여경험이 사회적 자본형성을 통해 사회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표 5. 연령, 교육수준, 사회계층 인식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동과 사회적 자본

연령(세)	변인 M(SD)	관심	태도	사회 복지 관련 활동	신뢰 형성	네트워 크 구축	사회적 규범형 성	사회적 자본
20~39 a	3.42(.53)	3.43(.71)	3.42(.59)	3.47(.66)	3.78(.70)	3.51(.86)	3.59(.73)	
40~49 b	3.25(.65)	3.30(.53)	3.27(.54)	3.31(.49)	3.40(.57)	3.59(.49)	3.41(.48)	
50~59 c	3.46(.66)	3.53(.55)	3.49(.57)	3.36(.50)	3.49(.56)	3.67(.53)	3.50(.46)	
60세 이상 d	3.31(.72)	3.36(.63)	3.34(.63)	3.35(.60)	3.57(.68)	3.73(.66)	3.55(.59)	
F	1.69	3.31*	2.70*	2.72*	2.58*	2.18	2.67*	
Scheffe		b<c	a)b	a)b	a)b		a)b	
교육수준								
고졸미만 a	3.41(.68)	3.45(.58)	3.43(.58)	3.41(.53)	3.55(.60)	3.70(.62)	3.56(.52)	
고졸 이상 b	3.28(.68)	3.24(.61)	3.26(.60)	3.13(.55)	3.42(.65)	3.53(.53)	3.33(.55)	
F	1.22	2.62	1.56	5.50**	1.67	2.04	3.73*	
Scheffe				a)b			a)b	
사회계층인식								
하위-중하층이하 a	2.95(.87)	2.99(0.83)	2.97(.81)	3.12(.76)	3.14(.72)	3.37(.58)	3.20(.65)	
중층 b	3.42(.64)	3.50(.52)	3.46(.53)	3.33(.57)	3.50(.58)	3.64(.55)	3.49(.50)	
중상-상위층이상 c	3.82(.26)	3.81(.29)	3.81(.25)	3.72(.28)	3.88(.32)	3.79(.26)	3.80(.24)	
F	7.53***	10.15***	10.18***	3.88**	7.58***	7.02***	7.55***	
Scheffe	a<b,c	a<b,c	a<b,c	a<c	a<b,c	a<c	a<c	

* p<.05, p<.01, p<.001

표 6. 사회복지활동 분야, 사회복지활동 기간, 사회복지활동 빈도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활동과 사회적 자본

변인 M(SD)	관심	태도	사회복지 관련활동	신뢰 형성	네트워 크구축	사회적 규범형 성	사회적 자본
노인복지 a	3.46(.65)	3.51(.63)	3.48(.59)	3.45(.51)	3.63(.56)	3.78(.53)	3.62(.47)
노인복지외 b	3.40(.67)	3.37(.85)	3.39(.54)	3.34(.48)	3.51(.60)	3.69(.53)	3.51(.58)
F	0.94	1.24*	1.02	1.00	1.03	1.11*	1.10*
Scheffe		a)b				a)b	a)b
사회복지 활동기간(년)							
3년 미만 a	3.03(0.84)	3.11(.77)	3.07(.73)	3.03(.73)	3.19(.68)	3.44(.57)	3.24(.59)
3~5년 미만 b	3.37(.71)	3.54(.59)	3.45(.61)	3.36(.50)	3.52(.63)	3.65(.58)	3.51(.53)
5~8년 이상 c	3.41(.64)	3.41(.57)	3.41(.56)	3.36(.53)	3.53(.62)	3.67(.60)	3.51(.54)
F	5.22***	4.91**	5.55***	3.98**	5.35***	3.70**	4.86**
Scheffe	a<c	a<b	a<b,c	a<b,c	a<b,c	a<b,c	a<b,c
사회복지 활동횟수							
1주 미만 a	3.15(.77)	3.25(.70)	3.19(.68)	3.16(.64)	3.33(.67)	3.50(.56)	3.32(.58)
1주 이상 b	3.61(.66)	3.63(.54)	3.56(.63)	3.48(.43)	3.64(.43)	3.84(.54)	3.65(.48)
F	7.04***	3.50**	6.12***	5.52***	3.42*	3.91**	5.21***
Scheffe	a<b	a<b	a<b	a<b	a<b	a<b	a<b

* p<.05, ** p<.01, *** p<.001

3. 사회복지관련 활동과 사회적 자본형성 간의 관계

동촌지역 여성단체의 사회복지관련 활동과 사회적 자본형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correlation) 분석을 한 결과가 다음 [표 7]에 나타나 있다. 표에서와 같이 사회복지관련 활동과 사회적 자본형성 간에는 (r=.609, p<.01)로 그들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개발이라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와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를 다루었던 소진광[27]과 최장수[35]의 연구결과 그리고 자원봉사활동과 사회적 자본형성 간의 관계를 다루었던 김태룡, 안희정[23], 이강현, 정진경[24], Smith[43]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하위요소와 또한 사회적 자본형성과 사회복지관련 활동의 하위요인인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r=.575), 복지에 대한 태도(r=.549)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사회복지관련 활동은 사회적 자본형성과 매우 밀접하고 그 하위요인인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태도 역시 사회적 자본형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사회복지관련 활동과 사회적 자본형성 간의 관계

	1	2	3	4	5	6	7
	사회복지 관련활동 관심	사회복지 관련활동 태도	사회복지 관련활동	신뢰형성	네트워크 구축	사 회 적 규범형성	사 회 적 자본형성
1	1						
2	.712 (**)	1					
3	.945 (**)	.902 (**)	1				
4	.454 (**)	.534 (**)	.527 (**)	1			
5	.551 (**)	.496 (**)	.569 (**)	.722 (**)	1		
6	.556 (**)	.452 (**)	.552 (**)	.659 (**)	.761 (**)	1	
7	.575 (**)	.549 (**)	.609 (**)	.866 (**)	.928 (**)	.893 (**)	1

** p<.01

4. 사회적 자본형성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사회복지 관련 활동의 상대적 영향력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사회복지관련 활동이 사회적 자본형성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가 다음 [표 8]에 나타나 있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한 결과 VIF지수가 10을 넘지 않았고 Durbin-Watson 계수가 1.983로 2에 가까워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서와 같이 먼저 1단계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회적 자본형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회귀식은 (R²=.314, F=9.365, p<.001)로 나타났다. 영향변수는 계층인식(β=.416), 사회복지 활동횟수(β=.195), 교육수준(β=-.169) 사회복지 활동분야(β=-.163) 순으로 나타났다. 즉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사회복지활동 횟수가 늘어날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회복지활동분야가 노인복지 분야였을 때 사회적 자본형성은 많았다.

1단계 회귀분석에 사회복지관련 활동의 하위변인인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 사회복지에 대한 태도를 추가한 2단계 회귀식은 (R²=.460, F=14.601, p<.001)로 나타났

다. 영향변수는 복지에 대한 관심(β=.332), 계층인식(β=.224), 복지에 대한 태도(β=.171) 순으로 사회적 자본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복지에 대한 태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형성은 많았다.

회귀식 I, II를 통해 볼 때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사회적 자본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31%였고 사회복지관련 활동(관심과 태도)변인이 추가됨으로써 사회적 자본형성에 대한 영향력은 46%로 증가되어 사회복지관련 활동이 사회적 자본형성에 대한 영향력은 15%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경아[34], 김미혜[3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사회적 자본은 조사대상자가 현재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참여시간이 길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 사회복지 관련 활동에서의 관심과 태도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사회적 자본형성에 대한 변인의 영향력

단계	사회적 자본 (N=250)			t	VIF	
	B	Err.	β			
step 1	(상수)	3.002	.469		6.401	
	연령	-.040	.048	-.070	-0.836	2.312
	교육수준	-.150	.066	-.169	-2.292*	1.784
	배우자유무	.049	.185	.016	0.263	1.198
	주거형태	.071	.089	.046	0.800	1.099
	사회계층 인식	.303	.050	.416	6.040***	1.556
	월 생활비	-.170	.034	-.129	-0.057	1.385
step 1	직업유무	.057	.073	.051	0.787	1.386
	사회복지활동분야	-.057	.021	-.163	-2.662**	1.234
	사회복지활동기간	.017	.028	.039	0.607	1.349
	사회복지활동빈도	.113	.035	.195	3.194**	1.217
R ² =.314, F=9.365, p=.000***						
step II	(상수)	1.645	.456		3.609	
	연령	-.011	.043	-.020	-0.264	2.331
	교육수준	-.109	.059	-.122	-1.850	1.806
	배우자유무	.133	.165	.043	0.802	1.205
	거주형태	.081	.080	.052	1.013	1.100
	계층인식	.163	.049	.224	3.340**	1.859
	월 생활비	-.106	.031	-.005	-0.392	1.506
	직업유무	.019	.066	.017	0.283	1.409
	사회복지활동분야	-.016	.020	-.047	-0.821	1.330
	사회복지활동 기간	.025	.025	.058	1.003	1.360
	사회복지활동 빈도	.051	.033	.088	1.557	1.304
	사회복지 관련활동 태도	.256	.058	.332	4.408***	2.336
사회복지 관련활동 관심	.147	.065	.171	2.253*	2.368	
R ² =.460, F=14.601, p=.000***						

* p<.05, ** p<.01, *** p<.001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현재 우리나라 농촌 여성단체는 농촌지역 문제해결의 주축이 되고 있으며 활동의 상당부분이 주민복지활동으로 다양한 활동이 하고 있으나 복지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 여성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활동이 사회적 자본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함으로써 농촌지역 여성단체의 복지관련 활동과 농촌복지의 시각지대 해소를 위한 역할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 여성단체의 사회복지관련 활동의 정도는 평균 3.36점이었고 사회적 자본은 평균 3.47점으로 이들 모두 중앙치인 3점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사회복지관련 활동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의 정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 먼저 사회복지관련 활동의 하위요인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3.34점이고 태도는 3.39점으로 거의 비슷한 점수를 보이고 있어 관심과 태도의 정도도 약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자본형성에 있어서는 하위요인 중에서 사회적 규범형성이 3.63점, 네트워크 구축이 3.47점, 신뢰형성이 3.31점으로 나타나 사회적 규범형성이 가장 높고 신뢰형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농촌지역 여성단체의 사회복지관련 활동의 정도는 계층인식, 연령, 사회복지 활동횟수, 사회복지 활동기간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다. 즉 중층 이상의 집단과 중상층 이상인 집단이 중하위층 이하인 집단보다, 20~39세의 집단이 40~49세의 집단보다, 사회복지 활동 횟수가 주 1회 이상인 집단이 주 1회 미만인 집단보다, 사회복지 활동기간이 3년 이상인 집단이 3년 미만인 집단보다 사회복지관련 활동의 정도가 많았다.

사회적 자본 형성의 정도는 계층인식, 교육수준, 연령, 사회복지 활동횟수, 사회복지 활동기간, 사회복지 활동 분야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중상층 이상인 집단이 중하층 이하인 집단보다, 고졸 미만인 집단이 고졸 이상인 집단보다, 20~39세인

집단이 40~49세인 집단보다, 사회복지활동 횟수가 주 1회 이상인 집단이 주 1회 미만인 집단보다, 사회복지 활동기간이 3년 이상인 집단이 3년 미만인 집단보다, 노인복지에 종사했던 집단이 그이외의 복지분야(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행정업무 등)에 종사했던 집단보다 사회적 자본 형성의 정도가 높았다.

셋째, 농촌지역 여성단체의 사회복지관련 활동과 사회적 자본형성 간의 관계에 있어 그들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관련 활동의 하위요인인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 복지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자본형성의 하위요인인 신뢰형성,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규범형성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어 그 하위요인 간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사회적 자본형성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사회복지관련 활동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 결과는 계층인식, 사회복지 활동횟수, 교육수준, 사회복지 활동분야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사회적 자본형성에 대한 설명력은 총 31% 이었다. 즉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사회복지활동 횟수가 늘어날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회복지 활동분야가 행정업무였을때 사회적 자본형성은 많았다. 여기에 사회복지관련 활동(복지에 대한 관심, 복지에 대한 태도) 변인이 추가됨으로써 사회적 자본형성에 대한 영향력은 46%로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복지에 대한 관심, 계층인식, 복지에 대한 태도 순으로 사회적 자본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복지에 대한 태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형성은 많았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 관련활동이 추가됨으로써 사회적 자본형성에 미치는 사회복지 관련활동의 순수한 영향력은 15%임을 알 수 있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농촌지역 여성단체의 사회복지관련 활동은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가지고 사회적 자본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촌지역 여성단체의 사회복지관련 활

동의 활성화와 사회적 자본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 여성단체의 사회복지관련 활동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자본형성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조사와 더불어 행했던 부가적인 조사에서는 여성단체회원들은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지역복지 등 다양한 복지관련 활동에 참여를 했지만 매우 미미하고 조직적이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관련 활동들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도 '회원들의 의지부족', '사회복지관련 정보와 지식부족', '재정부족', '회원수 부족' 등의 고질적인 농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복지현안문제를 들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이라는 지역적 문제와 여성단체라는 조직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이러한 활동이 개인적인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자신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역량강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관련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농촌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이제까지 사회활동의 경험도 적고 남을 돕는 일에 나서는 자신감도 부족하며 보수적인 지역성향에 여성들의 활동이 저조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정부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능동적 복지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보듯이 여성단체의 사회복지관련 활동은 사회적 자본형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단체활동을 통해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여 후손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지역민 간 그리고 이웃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지역민 상호 간에 신뢰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때 농촌에서의 여성단체의 활동의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농한기를 활용한 단체활동으로 여성특유의 경험으로 문제될 수 있는 농촌문제들을 개선하며 지역적인 특성을 부각시키고 더 나아가 생산적인 활동으로 사회적인 역량을 개발해 나갈 때 사회적 자본형성의 용량을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사회복지관련 활동과 사회적 자본형성은 사회

복지 활동기간과 횟수에 의해 더 높아진다는 본 연구결과를 볼 때 여성단체 회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정책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공적부조사업의 확대, 의료서비스의 향상,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 노인요양서비스의 강화 등이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한 예로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재검토를 통해서 회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회원 자신의 흥미와 취미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여할 때 참여 활성화는 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인 일반 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여성단체가 주축이 되면서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또한 장기간 사회복지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 및 비회원에 대해 지역의 일자리와 연계한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때 사회복지관련 활동에 대한 여성단체의 참여는 활성화될 것이다.

다섯째, 고령화, 의료시설의 부족, 소외와 고독 등 농촌지역은 도시보다 우선적으로 복지혜택이 필요하고 이러한 일을 행하는 인적자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 여성단체 봉사자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활동이 사회복지관련 활동이라는 인식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고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라는 자부심도 없이 이전부터 행해오고 있는 활동을 거의 변함없는 틀 속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여 오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 및 기술, 정보제공들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관련 일에 대해 전문성을 부여하며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과 더불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전남지역에 소재한 K군의 여성단체 사회복지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연구가 미미한 농촌지역 여성단체의 활동이 사회적 자본형성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농촌지역 여성단체가 행하고 있는 사

회복지관련 활동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1] 통계청, 주택 및 인구센서스, 대전: 통계청, 2010.
- [2] 함태홍, 한국농촌에 있어서 여성조직과 그 활동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3] 장덕희, “농촌여성단체의 사회복지 자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제149호, pp.101-128, 2001.
- [4] 한정자, 함인희, “지역여성단체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여성연구, 제17권, pp.227-255, 2000.
- [5] 한정자, “농촌여성의 조직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16권, pp.56-73, 1999.
- [6] 이금옥, 농촌여성의 생활개선 조직 활동 참여와 그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7] 정현숙, 여성단체 활동실태와 활성화 방안,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8] 새마을운동 중앙연합회, 업무자료, 서울, 1990-1998.
- [9] 김정옥, 도미향, 문혜숙, 박옥임, 박충선, 손홍숙, 오정옥, 흥달아기, 건강가정론, 서울: 창지사, 2014.
- [10] 박혜원, 문형구, “비영리 조직의 사회적 자본”, 한국비영리학회, 제7권, 제3호, pp.169-194, 2009.
- [11] R. Sanderfur and E. O. Laumann, “A paradigm for social capital,” *Rationality and Society*, Vol.10, No.4, pp.481-501, 1998.
- [12] C. Naphapiet and S. Ghoshal, “Social capital, intellectual capital, and the organizational advanta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3, No.2, pp.242-265, 1998.
- [13] 홍연란, 사회적 자본 지표 개발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서울: 교육개발원, 2007.
- [14] 이정연, 유병정, “조직신뢰가 몰입 및 조직 시민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지, 제15권, 제3호, pp.370-377, 2015.
- [15] 이동수, “사회적 자본의 유용한 탐닉재화로서의 종교행위”, 사회과학논집, 제15권, pp.555-578, 1999.
- [16] 양국진, 학교조직의 사회적 자본이 아동의 학교 공동체 의식과 학습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고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17] 염소림, 최유석,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9호, pp.255-266, 2014.
- [18] 이현기, “노인 자원봉사활동과 사회자본”, 노인복지연구, 제50권, pp.263-290, 2010.
- [19] 최윤정, “대중매체 이용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경로분석”, 한국언론학보, 제52권, 제3호, pp.373-395, 2008.
- [20] 구병주, 기업의 사회적 자본이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21] 하성규, 박기덕, “사회적 자본의 영향요인과 주거공동체 활성화”,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2권, 제4호, pp.133-153, 2011.
- [22] 이미숙, 사회 자본이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23] 김태룡, 안희정, “자원봉사의 활성화에 미치는 사회자본의 영향분석”, 한국정책연구, 제9권, 제3호, pp.197-218, 2009.
- [24] 이강현, 정진경, “자원봉사 조직 및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인정 보상시행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학회, 제5권, 제1호, pp.101-135, 2006.
- [25] 박충우, 사회적 자본이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26] 류기형, 남미혜, 박경일, 홍봉선, 이경희, 장중탁, 자원봉사론, 서울: 양서원, 2004.
- [27] 소진광,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6권, 제1호, pp.89-118, 2004.

[28] 염정호, *공공조직의 사회자본과 조직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29] 최운실, 윤선영, “사회적 자본 관점에서의 시민 사회단체 평생교육프로그램 분석”, *평생학습사회*, 제4권, 제2호, pp.39-70, 2008.

[30] 구혜정,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대안적 평생교육 탐색*,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31] 김미혜, *청소년의 참여활동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국제신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32] 김남수, *평생학습도시론*,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5.

[33] 이준서, *성인평생교육 참여자의 사회적 자본형성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34] 이경아, “평생학습 참여의 사회적 자본 형성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평생교육학연구*, 제14권, 제2호, pp.117-146, 2008.

[35] 최장수,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미국의 교훈”, *지방행정연구*, 제48권, pp.213-230, 2000.

[36] 김상민, “주민환경 운동과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시민사회와 NGO*, 제3권, 제2호, pp.155-237, 2005.

[37] 이양수, “조직 간 의사소통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복지 조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지*, 제42권, 제1호, pp.229-252, 2008.

[38] 권영숙,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이 사회적 자본형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39] 전은정, *순천시 기혼여성의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삶의 질 간의 관계*,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40] 성진숙, *평생교육 여성학습자의 자기효능감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41] 정현수, *중년기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와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42] 송인영, 김영화, “여성 결혼이민자의 평생교육 경험 및 사회적 자본의 유형과 적응의 관계”, *평생교육학연구*, 제17권, 제4호, pp.147-169, 2011.

[43] D. H. Smith, “Voluntary action and voluntary group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1, pp.247-270, 1975.

저 자 소 개

이 신 숙(Shin-Sook Lee)

정회원



- 1990년 2월 :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가정교육 석사)
- 1994년 2월 : 한양대학교 가정관리학과(가정학 박사)
- 2002년 8월 :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 석사)

▪ 1996년 3월 ~ 현재 :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노인복지, 사회복지실천

임 종 임(Jong-Im Lim)

정회원



- 2014년 2월 :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 석사)
- 2009년 4월 ~ 현재 : 구례군아이돌보미센터 사무국장

<관심분야> : 노인복지, 가족복지